

현자 전문가미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전문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 요구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지는 198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권을 비롯한 각종 이용시설의 증가와 함께 비로소 활기를 찾게 되었다.

21세기 초반인 현시점에서는 타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산도 타 종교기관에 비해 제도권하의 사회복지활동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당시 대한불교신문의 창간 등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정관 스님, 해충 스님, 정원 스님 등 몇몇 스님들이 포교의 방향을 복지활동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실천에 있어 부산에 변천한 법인이 없던 차에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사단법인 가산불교진흥원을 1993년에 부산으로 이전하여 사단법인 불국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 인접한 통도사 자비원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부산에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법인은 처음으로 설립되게 되었으며, 최초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했다.

이를 계기로 산중불교, 말로만 하는 중생구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단법인 불국도는 불운대종합사회복지관(현재 사회복지법인 내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현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 양정 청소년수련관(현재 재단법인 불국도 청소년도량)을 연이어 수탁 운영하게 되어 복지영역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영역까지도 넓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2-3년 사이에 불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타 종교로부터 견제와 아울러 질투(?)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후발주자로서 의욕과 과감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통한 신뢰성을 높여가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 오히려 기존의 종교단체로부터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불교뿐만 아니라 선불 주자였던 타 종교기관들도 보통 한 법인이 2개 이상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

④ 복지시대, 부산불교 현주소는?

인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견제를 타개하기 위해 불국도법인 소속이었던 불운대복지관과 두송복지관이 법인을 새로이 만들면서 스님들과 소속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이준성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사무국장

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는 장애인전문 시설인 반야원의 운영을 통해 그동안 부산불교에서 소홀했던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얼마 전 장애인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모든 종교들이 효사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불교만큼 효를 중시하는 종교도 없다.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효에 대한 부분은

교계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어린이집, 정신장애인보호센터,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적인 팽창이 있는 반면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개신교, 천주교 등 서양종교들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술적 측면에서 불교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러한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에 불국도복지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해충 스님)'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선의의 경쟁유발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과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이다. 다행히 1사찰 1복지기관 참여, 1사찰 1개어린이집 운영 등 일련의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단을 비롯해 사부대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승가대학 등 학문기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케 해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물적·인적 활동도 필요로 한다. 타 종교들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복지활동을 통해 전도를 하고 있다. 우리 불교도 많은 사찰과 수행단체들이 친목이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아타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통해 복지다원주의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만드는 만큼 생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중생은 물질과 정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행복을 느낀다.

불교의 가장 수승한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복지사업이다. 이러한 실천방법을 통해 중생구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해원에서 영도구노인복지관,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에서 가정봉사원파견 사업을 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불

짧은 기간 타종교 견제받을 만큼 활성화 장애인복지사업 등 전문영역까지 확대 복지다원주의의 맞춘 기술적 성장 과제



부산의 불국도복지관 봉사자들은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상호간 정보공유와 경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최의 2005년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및 직원 연찬회.

있는 범어사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를 설립하여 금정구복지관과 화명복지관을, 진각복지재단에서 낙동복지관을, 공덕향법원에서 공창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불국도에서 용호복지관을 추가로 수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용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이용시설의 운영에서 한발 나아가 전문영역으로의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독보적인 종교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어른신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불국도의 경우 부산 최초로 삼비요양시설인 상락정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해원에서 영도구노인복지관,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에서 가정봉사원파견 사업을 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불

봉사 통해 사랑·화합 확인

통도사자비원, 여름방학 가족봉사캠프 실시

어르신들 말벗되기 등

노인요양시설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하는 가슴 따뜻한 가족봉사캠프를 7월 24일 실시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휠체어 작동법 등을 배운 참가자들은 점심공양 보조를 시작으로 화장실과 방 청소, 말벗되기, 신책 등의 활동을 펼치며 자비원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루 봉사 일정이 끝난 후에는 가족단위 율동놀이와 가훈 만들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가족간의 사랑과 화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형과 함께 참가했다는 김중희(연양 중학교 1)군은 "도움이 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신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통도사 자비원은 7월 24일부터 4주간 가족봉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점심공양을 돕고 있는 모습.

자비원 가족봉사캠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055)381-2005, 2008 이은아 기자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스님)은 7월 23일 원생들의 새 보금자리와 수행터가 될 정토관 준공식을 큰 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진 정토관은 원생 숙소와 컴퓨터실, 도서관, 법당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보리수동산에는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6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영화 상영 등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은 인사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리수동산은 1976년 승욱스님이 경남 고성 육천사 청연암 주지 시절 부모 잃은

아이들을 맡아 기른 것이 인연이 돼 4년 전 경남 고성의 한 폐교를 임대하고 30명의 아이들과 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이은아 기자

홍법 스님 28주기 추모법회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운조당 홍법 스님 열반 28주기를 맞아 7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추모법회 및 영정 봉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회회장 법등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추모법회는 헌향, 헌화, 추모사, 영정 이운 및 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정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스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복덕을 등불 삼아 험한 세상에도 길 잃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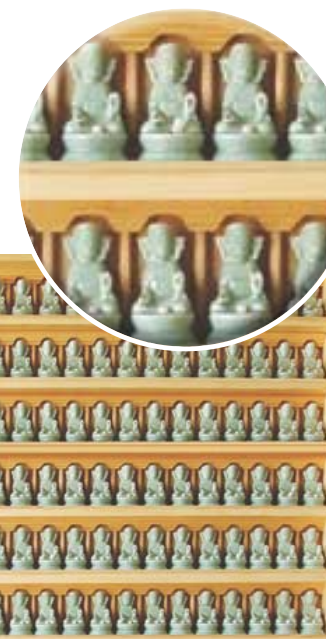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우란분절(백중)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을 공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